

* 2017 년 “미주 병원 연수 참가 서울의대 학생과의 만남” 행사 보고서

2017 년 7 월 1 일, 서울의대 미주 동창회는, 미주지역 병원 연수에 참가한 서울의대 4 학년 학생들을 만나는 뜻깊은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젊은 후배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서인석 선배님의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되었던 이 행사는 벌써 수 년째 이어지면서 서울의대 미주 동창회의 주요 여름 행사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초창기, 뉴욕 지역에 연수나온 학생들 위주로 초청하였던 이 행사는, 지난 해에는 오무연 동문의 노력에 힘입어 미주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초청함으로써 행사의 규모를 크게 확대시킨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동문회의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신 한승신 선배님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그 규모 뿐만이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의미있는 발전을 이루었는데, “패널 토의” 형태의 새로운 논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것입니다.

“패널 토의”는 지난 해의 성과 및 반성을 바탕으로 한승신 회장님, 이선희 동문, 오무연 동문 등이 논의하여 올해 새롭게 선보인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진행은 이선희 선배님께서 한 달 가까이 치밀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에 힘입은 바가 큼니다. 이선희 선배님께서, 올해 미주 지역 여름 연수를 나오는 서울의대 본과 4 학년 학생 (약 30 여 명)의 대표인 박제훈 학생과 한 달 가까이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여름 연수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미주 동창회 선배님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주제들을 미리 선정하였는데, 그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USMLE 는 언제 보면 좋을까요?
2. Non-citizen 으로서 학교/전공 지원에서 제한받는게 있나요?
3. 한국에서 레지던트를 마치고 Fellowship 을 미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의사/전문의 자격증이 나오나요?
4.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후, 미국 residency 에 지원하는 데에 어떤 merit/강점이 있을까요? (정신과가 특히 궁금합니다!)
5. Faculty 를 하지 않을 경우 주로 어떤 career option 들이 있나요?
6. surgery 계열 residency 에 매칭되는데 있어 non-US citizen/한국의대 졸업생으로서 보이지 않는 barrier 가 있나요??
7. 미국환자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한국과 달리 특별히 주의해야할 사항있나요?

8. 한국에서 학교생활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Artificial Intelligence 등 future technology 가 diagnostic part of medicine 을 대체하지 않을까'하는 생각들을 듣게 되는데, 미국 의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9. 연구 지원 면에서 미국에서 faculty 를 하는 것이 한국보다 뚜렷한 merit 이 있나요?
10. 기초의학과 임상의 연계가 한국에 비해 잘 된 편인가요?
11. 왜 미국에서의 의사 생활을 택하셨나요?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12. 한국에서 교육받으신 분들께: 미국에 건너가서 생활하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올해 연수 프로그램 참가 학생 대표인 박제훈 학생은, 참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의 행사 참여와 관련한 여러 실무적인 일들을 훌륭하게 마무리지어 주었습니다. 또한, 연수지가 미주 내 광범위한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12 명의 학생들이 “서울의대 미주 동창회와의 만남” 행사에 참여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처럼,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은 미주동창회 선배님들과 좀 더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하였고, 또 다양한 정보 및 조언을 선배님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오전 11 시에 뉴저지의 레오나에 위치한 제과점에서 만나서 서로간에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리로 시작되었던 이번 행사는, 오후 5 시 부터는 더블 트리 호텔의 회의장에서 공식적인 패널토의로 이어지면서 그 열기를 더했습니다.

패널토의는 밤 9 시가 넘도록 열띤 분위기 속에서 활발하게 토론이 오고 갔으며, 참여했던 12 명의 학생들도 오전에 처음 만났을 때의 어려워 하는 분위기를 벗어나서, 적극적이고 또한 활기차게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패널토의에 참여했던 미주 동문님들께서는 위에서 제시된 12 가지 질문들을 중심으로, 미주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온 몸으로 배운 자신의 경험 및 지혜의 이야기 보따리를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들려 주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이들 패널토의에 참여해 주신 미주 동문들은, 김용정 동문, 강민종 동문, 이태훈 동문, 조수정 동문 이셨습니다. 이들 패널리스트 4 명, 한 승신 회장님 및 김정아 동문, 이선희 동문 등, 패널토의에 참여했던 이들 7 명의 선배들은, 때로는 자신만의 개성 및 이력에서 우러나오는 독특한 색깔의 설명으로, 또 때로는, 미주 동문이라면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또한, 공식적인 패널토의가 끝난 후에 호텔 라운지에서 가벼운

각테일과 함께 마무리 모임을 가질 때에는, 서윤석 대선배 동문 께서도 참석하시어 이번 행사를 더욱 빛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크게 후회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과 같은 이런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후배들에게도 잘 전달되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밤 9시 30분 경, 공식적인 패널토의가 끝났을 때, 오랜 토론으로 약간은 상기된 젊은 친구들이 눈동자를 반짝거리면서 표현하였던 이런 감사의 인사말, 그리고, 선배들과 좀 더 이야기 하지 못해 아쉬워 하는 학생들과 함께, 공식 행사가 끝난 후에도 호텔 라운지에서 행사 참여자의 대부분이 계속 참여하여 끝없는 이야기꽃을 피웠던 늦은 밤의 분위기,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더욱 멋지게 만들어준, 마무리 모임 때의 화이트 와인 및 맥주... 하루 동안 진행되었던 후배들과의 만남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사는 강민중 동문이 작성했습니다.)